



定

이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하고 싶은 것, 들르 가려 싶어있다. 그것은 어느 한 순간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거나 지질러 놓은 과거와 「하고 싶은 것」이 해내야 할 미래 사이에서 조금도 편차 않은 우리의 현재를 숨가쁘게 좇아오는 것이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담지않을만큼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가 최후로 가질 수 있는 더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간 이라도 자유가 아닐까. 그러나 무언가를 그토록 하얏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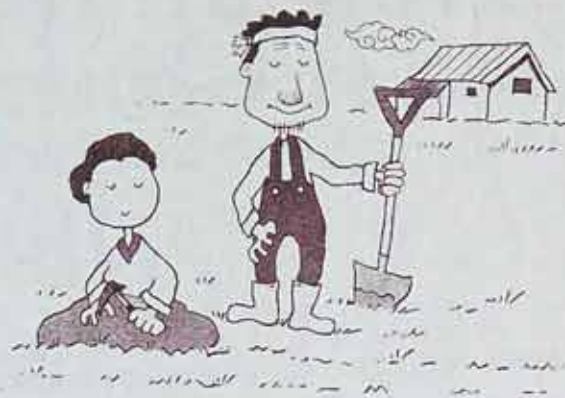
일체로부터 탈출 자유찾는 길 추구

알고자 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그 모든것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꼭 갖고 싶었거나 기쁘고 이루어내려고 했던 일,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대상들 자기와 관련된 일체로부터의 탈출, 어찌만 이것은 욕망의 극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욕망이란 것은 성취라는 말을 보아만 단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커저간 욕망이 마침내 얻고자 한 것은 결국 그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었다. 실다. 속마음에 얽어진 자유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이자 일종의 「자유」같은 것이다.

달라하고 할 것없이 그대로 장에 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하여 마치 비밀의 문을 엿본 것처럼 그대를 잊지못하게 될 것이다. 부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결국 이런 사람이다. 그들은 유방으로부터 뛰어나와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며, 그러로 한하는 비밀의 문을 엿보고난 뒤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된 사람이며, 마침내는 그 자유를 얻기위한 새로운 속박과 학생들 기꺼이 감내하고 사공이 다한 마음위에 끊임없이 자유로의 출구를 그려내는 사람이다. (황남재·관희가)

뒷산 울창한 숲에서 ②

주부신행담



어느날 아끼던 제자가 2권의 책을 가져왔다 '한사람은 그 법문을 이해하고 감동하는데 나는 왜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는 사람들을 위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우리의 뜻은 조금씩 알려져 봄. 여름 밤하늘안 일본과 서울을 비롯한 각지방에서 찾아온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해 20-30명씩 조를 나누어 3차일 일정으로 연수회를 열었다. 아홉 일찍부터 노동으로 시작해서 반쯤도해 진리에 대해 토론하며 얹한 수련회가 되

도록 노력했다. 학생들도 모두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이와에도 남편은 회보쓰는일, 자기가 이끌어오던 '광명생활회'라는 수도장에 나가는 일 등 연수생과 더불어 모든 일 하나하나에 혼신을 쏟아부었다. 마치 도인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정전벽해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암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크게 동요하는

나를 비롯기라도 하듯 남편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생활을 계속했다. 아니 오히려 그 흔한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무한한 생명력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이 계속됐다. 커다란 벽에 부딪힌 느낌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가장 아끼던 제자가 대행스님의 구도기 「불」와 「불」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암이라는 거대한 벽과 싸워오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가장 절실한 시기였기에 남편과 나는 큰 용으로 읽고 또 읽었다.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다. 그런 후 무리 스님의 법문 타이프는 있는데도 구해와 경청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 일과였다. 남편은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느꼈듯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바로 그것이야..." 하면서 맑고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곤 했다. 그런데 처음 법문때 느낀 것과는 달리 나는 오히려 점점 답답해지기만 했다. 초발심자경문에 사부터 육조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초를 닦은 나였지만 스님의 설법이 정점 대 할 수 없는 내용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함께 오던 세월동안 신심을 쌓아왔으면서도 '한사람은 그 법문을 이해하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는데 나는 왜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다. 한동안을 궁리했으나 나로서는 도저히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남편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남편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서 있었다. 이렇게 일했다. 「단신은 부처와 단신을 따로 보고 수행을 했고 또한 경을 위주로 지식만 넓혀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기 되지 않은 때문이야.」

이렇게 북방으로 대방반은 그의 친구와 동료들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그를 사랑한다. 그들은 보호하고 그를 보호한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들은 그가 곤경에 처할때 버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와 관계있는 사람까지도 존경한다. (Bikkhu 버리다. (백익명 기자))

The wife, ministered to by her husband, as the western quarter, loves him in these five ways, by doing her duty well, by hospitality to attendants, etc., by her fidelity, by looking after his earnings, and by skill and industry in all her business dealings. In five ways a member of a family should minister to his friends and companions as the northern quarter, by generosity, by courtesy, by benevolence, by equality (treating them as he treats himself) and by being true to his word.

무를 잘 함으로써, 시종들에게 친절함으로써, 정조를 지킴으로써, 그의 수입을 잘 관리함으로써, 충숙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모든 일을 함으로써. In five ways a member of a family should minister to his friends and companions as the northern quarter, by generosity, by courtesy, by benevolence, by equality (treating them as he treats himself) and by being true to his word.

다섯가지 방법으로 재가자는 한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⑫ 구와 동료를 북방으로 대해야 한다. 관대함으로써, 정중함으로써, 자비로움으로써, 자기자신에게 하듯 똑같이 대함으로써, 말한 바를

Thus ministered to as the northern quarter, his friends and companions love him in these five ways. They protect him when he is in need of protection. They look after his property when he is unable to. They become a refuge in danger. They do not forsake him in his troubles, and they respect even others related to him.

Ch 32 불교TV '95 불자주식 공모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국도, 우리 불자님들이 만드셔야지요." 한강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 시바세계는 물론 파연의 언덕까지라도 스며들게 하겠다는 듯이 흐르고 있다. TV 부처님을 모시는 중생불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바로 한강이 굽어보이는 자리이다. 어찌 불연(佛緣)이 아닐 것인가. 불교TV 대표이사인 내용스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자. "서기 8시면 꼭 사무실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얻기 위해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심 원력으로 기도하며 법으로 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권로스님들과 수좌들의 사원을 관치는 실무부로서 뛰고 있을 뿐입니다. 저 회사 사무실이다. 저 집집마다 부처님의 전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이제야 불국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이 믿고 뛰는 것은 부처님과 2천만 불자들이 바깥에서 돼주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를 위해 불교TV 중생불사를 하는데 불제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에 2차 불자주식공모의 목표도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5 불교TV 불자주식 청약안내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종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범어집.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 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편집: 한마음선원. 제작·보급: 도석출판 역시이문. ☎ 02)737-0695